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金)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聯盟의重大決意로 歐洲政局一大動亂未免

第十五條四項適用決定으로 制裁規定發動은必然

【쥬네브二十六日發聯合】聯盟理事會二十六日의 會議에잇서서 規約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하야 勸告案作成에 着手하기로 決定하고 去一月三日 에디오피아政府가 왈왈事件을 드러 聯盟理事會에 正式으로 提訴하以來 九個月狐疑逡巡을 繼續하여온 聯盟理事會도 마침내 最後의 手段에 遭適하게되엿다 規約第十五條第四項의 援用은 當然第十六條『制裁規定』의 發動을前提로 하는것인바 伊太利政府는 所謂植民地獲得工作에 追去할것은 決定事實인以上 聯盟은 傳家의 寶力인 經濟封鎖의 手段을 伊太利政府頭上에 加하리라는것은 거이 時日問題로되여잇다 이에 歐洲政局은 伊太利對聯盟의 抗爭伊太利對英國의 紛爭으로 展開되리라고 觀測되는바 歐洲動亂의 因子로 그推移는 重大視되여잇다 더욱 這間에 英佛伊三國政府間에는 目下 直接交涉이 極秘裡에 進捗되고잇는데 右도 戰禍의 擴大를 防止하는 程度의 것이라고보는바 果然如何한 效果를 收得할는지 疑問視됨으로 歐洲政局은 玆에 一步 一步 轉落의 步調를繼續하야 不安에 包圍되게되엿다

【쥬네브二十六日發電通】理事會는드듸여 聯盟規約第十五條를 發動키로 決定하얏는데 此는 前年日本과 파라과이 의脫退를 促하게된 聯盟으로서는 그 歷史上 일즉이 못보든 重大決意라 할것으로 드데여 聯盟이 最後手段을 取하기로 決定한셈이다 理事會는 伊에 紛爭和解努力을 今後도 繼續할意圖로써 그대로 存置키로 決定한以上 情勢가 今後도 惡化하면 理事會로서는 紛爭解決에 對하야 다시 何等의 積極的工作을 續行할 義務가잇다。

羅馬協定無視코 佛態度斷然硬化

라발氏의伊首相說伏無効로 英態度에積極的接近

【쥬네브二十六日發聯合】伊太利 에디오피아 兩國의 紛爭重大化함에따라 伊太利英國兩國政府의 사이에서서 去就를 注目받고잇든 佛蘭西政府는 斷然硬化하야 羅馬協約에基한 伊太利政府와의 親善關係도 無視하고 規約을擁護하기爲하야 態度를硬化함에 이르럿는대 佛蘭西政府의 硬化의 背後에는 뭇솔리니 라발兩首相間의 外交挿話가 潛在해잇다고 傳한다 佛蘭西外務省側의 確實한情報에依하면 聯盟理事會直後 라발首相은 羅馬駐箚大使 떠、샴브룽氏에 對하야 特히 訓令을發하야 쥬네브의 空氣를傳하고 뭇솔리니首相의 反省自重을 要請하도록 指令하얏다 同大使는 右訓令에基하야 뻬네차宮으로 뭇솔리니首相을 訪問하고 伊太利政府가 어데까지든지 旣定方針을 固執하면 大破局에直面하게 될것이다、只今 貴國의運命은 累卵의危機에在하니 十分考慮함이 잇도록 라발首相은 年來의 知友로서 考慮를 要請한다 그러나 뭇솔리니 首相은 조금도 귀를 기우리지 안코 果然 說과 가티 伊太利國은 重大破局에 直面하고 잇는지도 알수업다 그러나 에디오피아國 討征은 伊太利政府의 旣定國策이고 軍事行動의開始는 이미 一個月前부터 決定되여잇는 일로 이제와서 旣定方針을 變更할수는 업다 고 갈날가튼 對答을하여 同大使는 뭇솔리니首相說伏의 重大使命도 허되여 憫然히辭去하고 卽時 會見顚末을 쥬네브代表部에 通達하얏다 右報告에 接한 라발首相도 茫然自失하야 兩手를 든채로

萬事는 休이가 우리는 英國政府와 提携하자

라고 決然强硬方式을 決定하얏다고 傳한다

伊太利遂脫退?

第四項適用으로伊國內反聯盟熱漲溢 勸告不應必然形勢

【羅馬廿六日發電通】聯盟理事會는 마츰내 規約第十五條第四項의手續으로옴마 十三國報告委員會를 任命하게되엿는데 當地消息通側은 이에依하야 伊太利가 屈服하고 聯盟의 勸告를 受諾할는지 또는 日本의 例를模倣하야 敢然聯盟을 脫退할는지는 時日問題로되여잇다고본다 그리고 伊太利가 何者를 選擇할것이냐에 對하여는 理事會議長도 英佛代表도

모도 和協의途는 閉鎖되는것은안이다

라고 말하고잇스나 聯盟機構內에 五國委員會의 和協試案以上으로 伊太利에有利한案이 作成되리가업고 또 强硬하든 伊太利가 只今와서 聯盟의强壓에 屈服하야 勸告에 應하리라고는 생각 되지안흠으로 局面이 進展되지안는限 伊太利는 마츰내 聯盟을 脫退하리라고 觀測된다

【羅馬二十六日發電通】聯盟理事會가 正式으로 規約第十五條를 伊에紛爭에 適用하야 그四項에 基하야 報告起草에 着手한데對하야 反聯盟熱은 伊太利全土에 漲溢하고 羅馬官邊의 有力者들까지도 二十六日에는

우리들은 벌서 聯盟에서 아모것도 期待할수업다 우리들의 取할길을 그르 치지는안는다 다만 뭇솔리니 首相의 미테서斷乎直進할뿐이다

라고 强硬한言辭를 放하야 只今 羅馬는 上下를擧하야 戰時氣分에 沒入되여잇다 그러나가장 信賴할만한 當局으로부터들은즉 뭇솔리니 首相의 意向은 最後的 手段敢行의 覺悟에는 變化업다고하나 그實行은 모든外交的 處置를다한後 全히外交手段으로서는 解決不可能이라는 境遇가될때까지 참도록 하고잇는 模樣이며 突發事故에 誘導되지안는限 伊太利軍의 本格的行動開始는 聯盟諸事가 할수업시된 때이리라고 豫想된다

聯盟規約遵守를 英佛代表强調

報告書起草할十三人委員會成立

聯盟理事會經過(公開)

【쥬네브廿六日發聯合】聯盟理事會는 非公開會議에 繼續하야 午前十一時 四十二分(日本時間午後七時四十二分) 公開會議에 入하엿다 五人委員會의 報告에 基하야 理事會今後의 處理에 當할 重大裁斷을 내릴것이 期待되는것만큼 議場은 新聞記者其他의 傍聽者로 滿員의 盛況이엇다 議場正子의 中央馬蹄形의 테불에는 議長、루이스·게나스氏를 中央에 앉음 事務總長、英國代表 이든無任所相 數人을두고 에디오피아代表 테클르하와리아트公使 他方에는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佛國代表라발首相等 理事會 十三個國代表는 모다 悲痛한 얼굴로 着席하엿는데 但 라발首相의 隣席인 伊太利代表席은 空席으로 에디오피아代表와 席을 함께하지안는다는 既定方針에 基하야 알로이자男은 理事會 會議室부터 全然缺席하엿다고 한다 劈頭 五人委員會議長 마다리아가氏는 五人委員會의 和協工作의 經過를 報告하고 이어서에디오피아代表 하와리아트公使는 全會場의 緊張을 集中코 起立하야 에디오피아政府의 聲明書를 朗讀하엿다 하와리아트代表는 먼저理事會의 決定에 基하야 本國政府의 訓訓을 仰請할 權利保留하야가로되

理事會의 提案에 對해서는 에디오피아代表는 欣然 協力에應할 意向이나 最後的裁斷은 一切 本國政府의 指示를 기다리지안흐면안된다 本國政府에서는 提案內容如何에 不拘하고 愼重討議를 加하겟다고 確信하나 代表部로서는먼저 本國政府에 請訓할 權利를 明確히保留한다

에디오피아代表는 聲明書에 基하야 今回의紛糾에잇서서 自國의 公正한 立場을 强調하엿다 다음에 마다리아가氏가 이러나 規約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하야 報告書起草에 着手할必要를 力說하야 曰

伊에兩當事國政府는 이미 紛糾에關한 陳述書를 提出하엿고 五人委員會는 此等公文書의 檢討를 終了하엿다 그리고 에兩政府는 國交가 斷絶될 虞境가잇는 紛糾에 對하야 理事會는 去 九月四日부터 規約第十五條에 基하야審議를 開始하다 自國의立場을 闡明하기爲하야 覺書를 準備하고잇다고 傳하는바 萬一 右 覺書가 앞마추 到着하면 五人委員會는 右 覺書도 檢討하야 報告書의 起草에 充分考慮할것이다 그러나 五人委員會에서 審議한結果 規約第十五條 第三項까지의 調停手續은 大略 完了되여 이論에 到達하엿다 規約第十五條는 이미九月四日以來 發動되여잇고 理事會가 規約第十五條 第四項에依하야 同項에 明示된 報告書를 準備할 時期가이미 到來한것을確信한다

마다리아가代表의 報告가 終了되자 기나스議長은 理事會今後의 議事方針을宣明하야曰

聯盟理事會는 去九月四日以來 伊에兩國政府의 紛爭審議에 當하여왓스나 아직和平的 處理를보게되지못한것은 甚히遺憾으로 녀이는바이다 그러나 어데까지나 紛爭의 最後的處理에 邁進하려고 思한다 以上見地에서 左의對策을 提示한다

一、理事會는 當事國代表를 除한全員委員會를 組織하야 規約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하야 卽時『勸告를 시른報告書』의 起草에 着手함

一、但 五人委員會는 依然存續하야 並行的으로 規約第十五條第三項에 基한 狹義의調停手續을 講究함

一、理事會는 閉會하지안코 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한 報告書의起草를 完了하기까지 會議를繼續함

以上 기나스議長의 提案에對하야 十二個國代表全員 異議업시可決 玆에事實上 理事會에 代位하야『勸告를 시른報告書』를 起草할 十三人委員會가 成立되엿다 十三人委員會의人員은 左와如하다

佛國代表 루네마시그리氏 英國代表 이든無任所相 西班牙代表 데·마다리아가氏 蘇聯代表 [illegible]代表 墺太利代表 土耳其代表 루마니아代表 波蘭代表 葡萄牙代表 丁抹代表 에콰돌代表 智利代表

議長의提案採擇을 完了하자 英國代表이든無任所相은 卽時報告書를 起草할 必要를 力說하고 다시直接交涉을 示唆하야日

伊에兩國間의 紛爭에對하여는 理事會가 誠心誠意로 紛爭處理에 努力하고잇슴에도不拘하고 아직何等解決案에 到達되지못한것은 遺憾이다 刻下의 情勢에잇서서 理事會는 기나스議長의 提案에 基하야 何等遲滯업시 卽時 紛糾處理에 邁進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그러나 새로成立된十三人委員會가 報告書 起草에從事하고 잇는限 理事會의調停手續은 聯盟規約의 明文에 基하야 繼續할수잇슬것이다 一方 理事會가報告書의 起草에 從事하고잇는것과 並行하야 關係各國政府는 國際平和를 確保하는 見地에서 다시 모든對策을 講究할 方針이다 이點에 關한英國政府의 政策은 最近當局이 中外에 言明한바와 가틀것이다 英國政府는 어데까지 右政策에 基하야 紛爭의 平和的處理에 全力을 傾注할것이다

이든無任所相의 演說이 끗나자佛國代表라발首相이 이러나 同樣의 所信을 開陳하야 佛國政府는 어데까지 聯盟規約에 基한 諸義務를 實踐할決意라는旨를 表明하여日

伊에兩國의 紛爭은 波瀾曲折을 거듭하야 아직平和的解決을 보게 되지못 하엿스나 紛爭의 推移如何에 不拘하고 佛國 政府는 어데 까지 聯盟規約을 嚴重하야 規約에基한 義務의 一切를 忠實嚴格히 履行할 決心이다 理事會는 只今새로히 委員會를 組織하야 規約第十五條 四項에 基한 勸告案을 作成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右決定에依하야 理事會는 聯盟規約의 明文과 精神과에 副하도록 完全히 그使命을 遂行하야 國際法廷에잇서서 判事의 判斷이 어데까지 公正妥當하다는것을 全世界에 明示할수잇슬것이다

다음에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은

理事會의 決定은 그內容의 如何를 不拘하고 蘇聯政府는 最後까지 支持할決意이다

라는旨를 力說하고 最後에 丁抹代表 뭉크外相은 기나스議長의 提案에對하야 全幅的支持를 表明하야 左와如히 述하얏다

伊에兩國의 紛爭이 漸次重大化한 現狀에 잇서서 規約 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하야 報告書의 起草에 當할수밧게 업다 기나스議長의 提案은 聯盟의原則을 擁護하는 唯一한 最善의 方策으로 丁抹政府는 右提案에 對하야 全的支持를 악기지안는바이다

이리하야 理事會는 極度의 緊張裡에 公開會議를 續行하기 二十八分 午後零時十分에 閉會를 宣言하엿다

始政二十五週年 記念式擧行準備

總督府에서는 十月一日에 始政二十五週年記念式을 總督府東側廣場에서 午前九時二十分에 擧行하고 다시十一時에는 構內勤政殿에서 始政以來 物故功勞者並殉職者招魂祭典을 擧行한다 또 午後零時二十分부터는 官民約三千名을 慶會樓에招請하야 祝賀宴을開하되 餘興及模擬店等을盛大히 開催하게되엿다한다

十三人委員會

現地調査團派遣審議

【쥬네브二十六日發電通】二十六日理事會가 最後的勸告案作成을 爲하야 任命한 十三人委員會는 二十七日 初會合을 行하고 에디오피아 政府가 理事會에對하야 한國境紛爭의 眞相調査를 爲하야 聯盟은 卽時 第三國의옵서버를 現地에 派遣하여 달라는 要請에 關하야 審議를進行할豫定이다

理事會及總會 二十八日부터休會

【쥬네브二十六日發聯合】聯盟理事會及 總會는 來二十八日 다시 開期日을 定치안코 休會에 入하기로 決定하얏다 休會後 不測의 事態가 惹起되면 理事會는 二十四時間內에 또總會는 四十八時間內에 各各招集될것이다

司法部聲明만으론 世間의疑惑不解

陸軍의態度끗까지强硬

【東京電話聯通】二十七日의 閣議에서 表明할 美濃部問題에對한 司法部의 第二次聲明에 對하야 陸軍에서는 그進行을 重視하야 오로지 그發表를 기다리고잇는대 川島陸相以下 陸軍首腦部는 右聲明은 到底陸軍에서는 納得할수업는 程度의 것임을 豫想하고잇다 그리하야 陸軍으로서는 當初부터 司法權에 干與하는 意思가 업슴으로『右聲明以上으로 發表함은 司法權의 干犯이다』라고 司法當局이 主張하는 以上 이를 追求치안흘 意向이나 司法當局이 聲明하기로 豫想되는 程度의 發表로서 世間一般의 疑惑을 풀기는 絶對不可能하다고 하는信念은 斷然『할수업고 陸軍의 主張함과가튼 發表가 司法權의 干與라고한다면 他方法으로서라도 끗까지 世間一般의 疑惑을 풀기로努力하야 法相과 首相에 對하야 要求하리라고觀測된다

小原法相聲明

【東京電話聯合】小原法相은二十七日의 閣議에서 美濃部博士의 處分問題에 對하야 如左히 報告하야 各閣僚의 承認을 求하고 正午如左히 發表하얏다

今月二十五日의 閣議의際 陸海兩大臣으로부터 美濃部氏의 心境에對하야는 二十一日의 法相談의形式으로 發表된文書에는 오히려 相當히 世上에 疑惑을 품게하는傾向도잇서서 遺憾의事情을 詳細히 發表할 必要잇다는 意見도잇서 이지음에 左記의事項을明瞭히 해둠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하야 이것을 閣僚에 報告한다

美濃部氏는 去九月十四日 檢事의 二回의取調에 잇서서 自己의 擧動으로 因하야 世間에 物議를 惹起한것에 對하야 는 참으로 恐懼하다 따라서 今年三月以降 모든 學校의 敎職을 辭하고 新聞雜誌의 寄稿도 그치고 할수업는 境遇外에는 모든것을 拒絶하야 謹愼의 意를 表하얏스며 今後는 學問에만 精進하고싶흔 意向을 가지고잇스나 憲法學의 講義는 그만두겟다는 생각을 말하고 또 貴族院議員에對하야도 適當한 機會에 進退를考慮하고싶흔旨를 가티 말하얏스며 同月十六日에 이르러서 同氏로부터 自進하야 司法大臣에 對하야 自己의 貴族院에서의 言論을 契機로 하야 今日과如한 情勢를 惹起한것은 衷心으로 遺憾히 녀이는바이며 此際 차라리 議員의 榮職을 辭하는것이 至當한 措處라고 생각하고 速히 辭職한다는旨의 書面을提出하엿슴으로 檢察當局에서는同氏에게 反省하는 意志가잇는것을認定하고 最善에 發表한것과 其他의 事由와를 아울러 생각하야起訴猶豫處分에 附하게되것이다 九月十六日 書面及 同月二十一日 同氏의 聲明取消에 關한 司法大臣에게보낸 書面은 모도 同氏의 執筆로 되여잇고 또二回가모도 同氏 令息亮吉氏가 司法省에 寄託하엿다는것을 參考로 附記하여둔다

새로昇格된三府 新任三府尹決定

十月一日부터 府로昇格하는 全南光州邑 全北全州邑 忠南大田邑의 三府尹은 左와如히 決定하야 一日附로 發令될것이라 한다

釜山府理事官 杉山茂一 任光州府尹(五等)

木浦府尹 野口三郞 任大田府尹(五等)

平南大同郡守 高堂健二 任全州府尹(五等)

英主力艦大移動

伊軍國境突破豫想코

【倫敦二十六日聯合】英國政府는 聯盟의和協工作이 드듸여 決裂되야 伊太利軍의 에디오피아國境線突破도 인제는 時間問題가됨에니를 情勢에鑑하야 地中海近東領海一帶에亘하야主力艦의大移動을敢行하고殖民地및 通商路確保를 期하야 鐵箭가튼 堅陣을펏다 이미 地中海根據地에는 本國艦隊殖民地艦隊로부터 增援된 巡洋艦、水雷敷設艦 掃海艇等이 續續急行하고 말타島에는 巡洋艦驅逐艦、水雷敷設艦 數十隻이集結하고잇서 伊太利海軍의 潛水艦과 待時하고잇다 지부랄타르要塞及스에즈運河地帶는英國海軍의精銳主力艦이數隻遊弋하고잇스며 또紅海方面에 備코저하야 中國艦隊의 主力艦이 續續南下하야 싱가폴에 待機或은 아데港에急行하고잇다

人事·集會

▲岩佐祿郞中將(新任憲兵司令官) 赴任途中 十月一日 午後三時 京城驛着 一泊後 渡東

▲朝吹常吉氏(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社長) 新任人事次來訪

▲小橋熙氏(同 營業課長)同上

▲柳澤清氏(同 京城支店長)同上

▲宇佐美勝夫氏(元內務局長)二十七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列車로入京

▲遠藤柳作氏(元滿洲國總務廳長)同上

▲澤田豊丈氏(元東拓理事)同上

▲高久敏男氏(元殖銀理事)同上

▲今泉重松氏(元鐵道局工務課長)同上

▲關屋貞三郞氏(元宮內次官)二十九日午後七時四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入京

八面鋒

◇ 에디오피아問題를 떠드는 이즈음 米國서는 하우스大佐의 國際뉴띨論이 大衝動。

◇ 國際뉴띨이라함은 國內의 富를 再分配하듯이 國際間의 植民地를 再分割하자는것。

◇ 領土를 가진 英佛蘇米의 大國이 들을바 아니지만、設使 듯는다한들 分割되어가는 植民地民의 心情이 首肯할가。

◇ 米國의 國內뉴띨이 富者를 本位하고 맨든 政策이기때문에 失敗하듯이、國際뉴띨도 强者를 標準하고 만든 學說이기 때문에 一種의 卓上空論。

◇ 世上은 반듯이 强者만이 사는것이 아니다、에디오피아에는 印度人、愛蘭人、米國人、日本人等으로부터도 同情이 翕然。

◇ 孤立한 伊太利에 衰滅이 올밖게。

大同郡西川面仁興里四二番地田一基 同郡同里三五番地ノ二 [illegible] 에對하야 管理者가 [illegible] 月二十日內로 [illegible] 平壤府巡營里四七番地 [illegible]
出願人 朴泰成

善良한店員 はれやか 손님들이好評! ¥0.30 ¥0.50 ¥1.00 (頭痛·齒痛)

新民謠界의 巨彈! 織婦歌 (四〇六三五) 曺秉驥 Columbia

品質保證 特報進呈 染料 원료물감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番 振替京城八四一

頭痛 齒痛 에 과 は 効 散 效力이速하고評判잇는同効散은 神經痛에도가 特効잇다고하야 어느藥店에나 最近에는굉장하게팔인다。 理論보다證據 한番試用하시라 本舖 東京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陰〇不感症 强精新藥 セーブレピン 中井醫學博士創製(男女共用) 五川醫學博士推薦 發賣元 東京市 合資會社天一堂

理想的パンク防止劑가나왓다 一大躍進陸海軍御試驗濟 보라!! 特約店募集 朝鮮中部總代理店永田工作所 電話龍山一二八三番 五四三番 南鮮總代理店岡崎商會 製造元總發賣元 東京眞鍋商事株式會社 僞造品이잇스니 扇標에注意 扇印 パンク防止劑 專賣特許第七八九五號 第七八九六號

蓄音器界에一大革命 驚異的新發明 파라곤포-타불 特許十一件을끼어서!

謹啓 今般弊社는 過去八個年間 不眠不休銳意硏鑽한 結果 外國品을 훨신 凌駕한 파라곤蓄音器를 完成하야 音樂界의 革命的新製品을 發賣하게되얏습니다。이 新發賣파라곤포-타불은 特許十一件을具備한驚異的優秀品으로서、싸운드뽁쓰를 下向으로하고、長尺의 擴聲랍팔은 六十싸이클의 低音을 吹込하야 原音 그대로 살여서 在來의 蓄音器에依하야서는殆히除減된듯한느김을주든 三味線、북、장고의低音伴奏도 明確히 聽取할수가잇게하는等等의 機能構造全般에 對하야 新發明을 取入한것으로 十二吋의레코-드를自由로 걸수잇슬뿐안이라 十吋、十二吋의레코-드十二枚入의 케-쓰裝置에다가 前面에는 美麗한 鐵網을부처서體裁優美堅牢하며、다시 携帶用카-바를부친 文字 그대로의 理想的高級品으로 임의 斯業界各位의 絶讚을 博得하고잇습니다。價格도 三十六圓부터 箱型等八種에일으기까지 百六十圓이란低廉한價格임으로、家庭의 團欒은 勿論、登山、하이킹、散策、遊覽에 恒常여러분의好伴侶로써 가장 適當한것입니다。優秀品은 外國製라고 認識되고잇든것도 根底로부터 轉覆하고、近年世界的으로 認識되야오는 日本製品의 優秀廉價의 特質을 如實히 發揮할수잇는것은 당돌이도 敢히弊社의 자랑으로 삼는바입니다。구우에 파라곤포-타불은 뚜게가 라팔의 一部를 도우는特許構造로 되야잇슴으로 뚜게를닷고、닷게되며그우에發音部의機能을損傷할憂慮도업고外觀의 美를調和식히고 잇습니다本器의가장特長으로하는流暢軟調圓滑美音을 具備한點은 반다시 여러분의 期待에 奉副할수잇는것이라고 確信하고잇습니다 比島、南洋에서도 續續好評을보내고 將次世界市場에 雄飛하려할 此際好樂家諸彦이 全部愛用하여주시도록 깁히 懇願하는바입니다 敬白
各位
(下命은各樂器店에)
製造元 パラゴン蓄音器株式會社
朝鮮一手販賣元 青木商會 京城古市町 電本三五六六、四五三八、二〇七八

第一回新譜 LUCKY
(三五〇一) 流行歌 하이킹의노래
(三五〇二) 流行歌 가을의鐘路
(三五〇三) 짜스송 몬테카로의장난이
(三五〇四) 流行歌 춤추는아가씨
(三五〇五) 漫謠 암으렴그러치
(三五〇六) 民謠 新調梁山道
럭키-레코-드

九月二十七日부터特別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낮一時 밤七時半 始映
銀幕新裝!空前의名畫 漢陽映畫社超特品 朝鮮名畫 江건너마을 全十卷 原作 監督…羅雲奎氏 尹逢春、車相銀、田澤二、玄舜英、玄芳蘭 主演
本年度朝鮮映畫中秀逸의作品 純潔한人情의波瀾을 描寫한 羅雲奎最近의力作으로異色篇!!
◇MGM社超特作全發聲映畫 海洋劇 술취한배 全六卷 監督…마부인레로이氏 主演…우오레스、뻬아리氏
發聲漫畫 全一卷
麻浦桃花洞 電龍 一三三 桃花劇場

當る廿七日封切(四日間) 矢繼早に日活、新興の續大物封切!! 秋の銀幕に迫る!! 待望のマキノ正博監督作品遂に來る!!
大入滿員御禮續映 階下席 大人廿錢 小人廿錢
新興キネマ夏期提供 寬プロ超特級第二回オール·トーキー
監督 マキノ正博 撮影 野村金吾
春霞八百八町 —なりひら小僧—
劍劇陣 [illegible] 主演 田村邦男、岸東一郎、マキノ智子、嵐德三郎、嵐德太郎、特別出演 他寬プロ一流總出演
浪人街を描いてはユニークな境地を拓く驚異的結晶作!!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級作
原作 伊原青青園 監督 青山三郎 撮影 行山光一 郡新聞連載小說 オール·サウンド
自活する女
明眸山路ふみ子二役主演 小役宮原秀雄、瀧鈴子、淸水將夫 楡川敬治、三桝豊大友壯之介助演
永樂町 電本三三 中央館

"朝鮮共靑"大公判
劈頭被告會議主張
死亡被告默禱等裁判長拒絶
四十二被告大概健康

【咸興에서本社特派員李鍾模發電】 조선공산청년동맹(朝鮮共産靑年同盟) 사건의 관계자 정태옥(鄭泰玉) 등 사십삼명에관한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의 제일회 공판은 소화팔년오월 검거된 이래 삼년만에 이십칠일 오전아홉시십오분에 함흥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미전(米田)재판장 의주심 대정(大町)검사 립회하에 개정되엿다 심리에 드러가기전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에게대하야 공손히 공판의심리에 응 하라는 주의가 잇슨후례대로 피고들의 주소 성명을 심문 하엿는데 이사건 관계자중에 단한사람의 여자피고인 리금복(李金福)(二二)은 임신중 이 므로 형무소내 에잇서 출정치못하고 또 리히정(李熙定)(二九)은 병으로 고통중인것을 그대로 출정하엿스므로 몹시 괴로워하고잇섯다 그밧게 피고들은 모다 씩씩한얼굴로 재판장의 심문에 응하고잇섯다 피고석을 보건대 일본명이 푸른미결수의복을 입은이외에는모다 조선옷을 입고잇섯스며 출정피고는 전부 사십이명이엿다 방청석에는 피고들의 가족이 삼십여명이 착석 하고잇섯다

【咸興에서 李特派員發電】 피고들의 주소성명의 심문이 끗난후 아홉시 오십분부터 먼저 정태옥의심리에 들어가려할때 정태옥은 우리피고 일동이 경찰서에 체포되야 형무소로 너머갈때에는 수가 지금보다만헛다 오늘 출정하야 비로소 동지몃사람이 죽은것을아럿다 우리는 죽은동지를 위하야 삼분간 묵도하고십다 그리고 이재판을 신중히 진행하기위하야 피고회의를 열도록 하여주기를바란다고 요구를 제출한데 대하야 재판장은 절대로 허락할수업다고 거절하나 피고들은 재삼 요구를들어달라고·청하엿스나 재판장은 그러한요구는 심리가끗난후 말하라고 요구를일축하엿다 그다음 오기섭(吳淇燮)도 일어나서 「자기는 예심종결서 내용은 전부 부인한다 그러키때문에 피고 회의를열게해달라」고 말하고 그밧게 수명의피고들도 차레로 이러나서 동일한 요구를하엿스므로 공판정은 갑작히 긴장되는공기가 떠돌앗스나 재판장은드듸여 피고들 의요구는 허락치안엇다 그다음에 김히경(金喜慶)은「관선변호인은 거절한다」고 의견을 말하고 다음 피고들도「서로 악수 하기를 허락하라」고 요구하엿스나 이것도 재판장에게 거절당햇다

時餘나騷動後에
鄭泰玉부터審理
活動經路를全部是認

【咸興에서特派員李鍾模發電】 사망한 동지를 위하야 묵도(默禱)할것을 허락하라、피고의회의를 허락하라、공판을 절대공개하라、관선변호사를 거절한다는등 의일로 약한시간이나 말성이된다음 오전열시 사십오분부터 겨우정태옥(鄭泰玉)에 대한 사실심문을 하게되얏다

정태옥은 일즉이 경성청년동맹(京城靑年同盟)에 가맹한 일이 잇섯슴을 말하엿고 재판장으로부터 피고는 조선의××을 희망하얏는가하매 피고는 그는 자긔한사람만의 ××이 아니고 아마 전조선민중의 ××하는바 이리라고 대답하얏다

그다음 피고는 공산주의에 공명하게된 경로를말하고 국제공산당의 동양부(東洋部)에서 파견된 리모의소개로 막사과(莫斯科)에가서 공산대학을 졸업하고조선에도라와서 동지들과 련락을취하야 조선공산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저 경성에서 격문을 만들어서 각공장에 배포하야로동자를 선동하고 또는 경성의 각중등학교생도를 획득하야 독서회를 조직하야서 공산주의를 연구식히고 또는선전하얏고 경성、인천、등지에뻐처서 조선공산청년동맹을 조직코자 준비위원회를조직하랴고 활약한것을 일일히시인하얏다

檄文謄寫機等
證據物을山積
被告들은極히緊張

【咸興에서李特派員發電】 정태옥은 대체로 사실을 시인하엿는데 재판장은 각긔념일에 인쇄배포한격문(檄文)등을 일일히실물을 보히면서 질문하엿든바긔념투쟁을하엿던일은 잇스나 격문을 배포하거나 또는 운동방침등을 쓴점은 거이모다 부인하야 중요점은 거이 긔억이업다고만 대답하엿다 그리고 경성녀자고학생상조회(女子苦學生相助會)리현봉(李賢鳳)이라는 녀자를 획득한 사실은 확실히 시인하엿다 재판장은 산가티 싸힌 이십여종류의 격문과、등사판밋등사할때 사용한 때무든 장갑을일일히 보히면서 질문하엿는데 장갑을보히는순간 피고중에는 과거의 자긔들이 한일이 생각이 낫는지가만히 웃는이도 잇섯다 정오까지 정태옥에 관한심리는 끗나고 다음에는 진해룡(陳海龍)의 심리로 들어갓다

被告家族들만
傍聽을制限
法廷內外는警戒嚴重

【咸興에서李特派員發電】 이날피고들사십이명은 아침여덟시쯤하야 형무소로부터 재판소구치장에 호송되엿는데 재판소내외는 함흥경찰서의 정사복경관 이십명에 의하야 엄중히 경게하고 잇섯스며 재판소정문에는 경관이서서 피고의가족에 한하야 방청권을주고 그밧게 사람에게는 절대로 입정을 금지하엿는데 피고들의 가족은 모다 긴장된얼골로 재판의진행에 주의하고잇섯다 특히 귀여운 외아들을 형무소에보낸 로인과 사랑하는 남편과 헤진지 이삼년만에 그얼골만이라도 보려고 초연히법정모퉁이에 안젓는 젊은여자라던지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게 하엿다

被告住所姓名

京城府仁寺洞十五 指物商 鄭泰玉(三七)
京城府社稷洞二十九番地 職工 陳海龍(二七)
咸南北靑郡俗厚面稀湖里
京城府薰井洞七十六番地 無職 韓鐵洙(二七)
京畿仁川府外里 無職 全鄕鎭(二九)
京畿仁川府花町 文房具店 愼詩輸(二二)
咸南洪原郡州翼面南山中里 勞働 韓永可(二七)
無職 一名니코라이 올라킨 吳淇燮(二四)
咸南咸興府中央町 無職 柳壯運(二五)
咸南咸州郡下歧川面仁興里 無職 韓孝三(二三)
咸南咸州郡州北面興詳里 無職 姜昌濬(二三)
咸南咸興府城川町 新聞記者 李金福(二二)
咸南咸州郡州北面松興里 農業 李龍培(二五)
咸南興南邑新上里 海産物商 李曾探(二六)
咸南咸興府黃金町 無職 李熙定(二九)
咸南咸興府黃金町 無職 李明瑜(二四)
咸南咸州郡州西面上里 雜貨行商 方汝濂(二三)
咸南咸興府福富町 無職 俞英洪(二四)
咸南咸興府城川町 無職 崔昌模(三〇)
咸南咸州郡雲南面宮西里 農業兼勞働 申明鈞(二二)
咸南咸州郡雲南面龍興里 無職 朱亨基(二二)
咸南道咸興府城川町 無職死亡 金在灣(二四)
咸南咸興府福富町 勞働 崔璟德(二六)
咸南咸興府城川町 無職 金喜庚(二三)
咸南咸興府新興町 無職 尹致濟(二四)
咸南咸興府中央町 職工 裵炳彬(二四)
咸南咸興府出雲町 勞働 車又永秀(二四)
咸南咸興府榮町 新聞配達 崔元祚(二二)
咸南咸興府城川町 新聞配達 崔根哲(三〇)
咸南咸州郡興南邑九龍里 新聞配達 劉在呂(二五)
咸南元山府斗南里 職工 文哲讓(二五)
咸南咸州郡州北面興詳里 無職 朴炳浩(二五)
咸南咸州郡川原面上山里 農業 李根秀(二三)
咸南咸州郡州西面興南里 農業兼勞働 韓河鎭(二五) 敎員 柳榮俊(二四)
咸南咸州郡州西面八里 農業 金書鳳(二七)
咸南咸興府城川町 無職 洪智一(二四)
咸南咸州郡州西面八里 農業 全 河(二四)
咸南咸州郡州北面松興里 鐵道運轉手 任遠錫(二四)
咸南咸州郡州北面歧陽里 農業 韓國來(二五)
咸南咸州郡雲南面龍興里 農業 魏在英(二四)
咸南咸州郡東川面會上里 無職 金琪均(二五)
咸南咸州郡東川面上水里 敎員 朴高善(二六)
咸南咸州郡州西面十二里 米穀商 朴秀甲(二四)
咸南咸州郡德山面大洞里 農業 朱秉基(二七)

第二回 全京城商工者
望月寺丹楓노리

★봄철을 한해중가장 조흔시절이라함은 선연(嬋姸)라만한 꼿이 잇슴으로서이다 그러나 가을의 단풍이야말로 『봄꼿』보다 오히려 고와라는(紅葉勝於二月花)한 녯사람의 글구를 빌지안키로니 뉘라서 이를부정할것이냐! 여름(稔)의 믹거움과 겨울의 깃붐을 한가(含)안고 깨끗이 트인 옥우(玉宇)더할수업시 표백(漂白)된 대긔(大氣)속에 폐장(肺臟)이 늘어나는 한까지의 심호흡(深呼吸)을 하며 하루의 한일(閑日)을 가지고 유수(幽邃)한 자연의 품긔히 들어가 고적을찻고 수석을 친하며 산과(山果)를 맛보아 피로를잇고 친구를 위로함이 엇지 노곤한 봄날의 하루를 양지쪽에 보냄에다 비할것이냐?

더욱이 도회의 살풍경한소음(騷音)속、황진마장의 혼탁한 분위긔에서 몸과마음을함께 시달린도회인、그중에도 점두에서는 거리의아우성과 공장에서는 『모-타-』의 갈림소리에 말초신경을 무듸여노흔 도회생활의 최전선의 투사인 상공업가、그들에게 이와가튼 긔회를줌은 실로 주린이에게 량식을 제공함과가튼일이다 최소의경비와 최단의 시간을가저 가장의의잇는 명소와 가장갑잇는 탐승을 하도록하고 아울러 자미잇는여흥까지잇는 이번 망월사(望月寺)탐승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신정상으로 엇는바 수확으로나 실로『일백이십파-센트』의 가장 합리(合理)된 하루의『피크닉』될것이다

一、日時 十月六日(第一日曜)
一、出發 集合、淸凉里驛前 午前八時까지 同五十五分發車 到着同九時二十分 望月寺假驛着
一、歸路 望月寺假驛發午後五時二十分、淸凉里到着 同五時四十分
一、散會 同五時五十分淸凉里驛에서
一、場所 望月寺一帶 探勝
一、定員 三百名
一、會費 一圓二十錢 (汽車賃、午飯、茶酒類二合瓶、記念品、賞品等包含)
一、申請 場所及方法 (本社庶務部又는廣告部로電話하시면社員이進拜接受함) ▲和信案內係 ▲天一藥房支店(黃金町) ▲和信連鎖店(西大門) ▲以文堂(安國洞) ▲博愛堂(鍾路二丁目) ▲東亞婦人商會(鍾路二丁目) ▲(東仁商店)(東大門) ▲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南大門市場內)

申請期限 十月二日까지

主催 朝鮮日報社

驅逐艦四隻遭難
五十名行方不明
二名死亡十名은負傷

【東京電話聯合】 海軍省公表=이십륙일오후에 본주(本州)동부해면을 통과한 이상한 태풍을 조우(遭遇)한제사함대(第四艦隊)는최고공속삼십오미돌의 거츠른하눌을 무릅쓰고연습에 종사하야 격랑으로 구축함의 초설(初雪)、석무(夕霧)는 선체에 상당한 큰손해를 입엇고 목월(睦月)과 국월(菊月)도 약간의 피해를 입엇는데 조난자는 전부 오십이명으로 사망자가 한명이고 부상자가 십륙명이엇다 한다

利根川은減水
東北本線開通

【東京電話聯合】 맹위를 뽐내든 리근천(利根川)의 범람은 이십륙일 오후에이르러 차차 감수되기시작하야 상반선(常磐線)은 이십칠일 새벽에는 완전히 운전할가망이잇다 동북본선(東北本線)은 오후에이르러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기로 되엿는데 다시 통치못하는곳은 이십구일까지에는 복구될 예정이다

堤坊決潰되여
八十名失踪

【土浦電話電通】 이십륙일오후네시 자성현부상마군 고수촌(茨城縣北相馬郡高須村)압흘 흐르는소견천(小見川)의제방이 터저서여덜시삼십분에는 그부근일대의논(畓)삼천오백정보에 침수되엿고 고수촌의 오십여호는 탁류에삼키워 류실되엿스며 제방을경계중이든 소방수네명은 탁류에밀려서 행방불명이되고 중간제방을 쌋든 방수작업중의 촌민팔십여명은 탁류에 밀려서 드듸여 행방불명이되엿는데 동아홉시에 이르도록 갈수될 가망이업스므로 열시에수구(水口)련대로부터 공병일백팔십명이 출동하엿다

群馬縣大水害
死傷六百餘名
家屋損害倒潰浸水等萬餘戶
損害一千萬圓豫想

【前橋電話電通】 군마현(群馬縣)하류 휩쓴 호우의 피해에 관하야 이십륙일밤 구시 현재 조사로 동현보안과에 도착한 보고를 종합하면 아래와가튼데 피해액은 일천만원이 넘으리라한다

死者 三一三名 重傷 六一名 輕傷 二七六名 計 六五〇名
家屋倒壞 二〇一戶 同流失 一三三六戶 同浸水 八、一九一戶 田畑流失約六千町步를 넘을 모양이다

各溫泉全滅、死者多數

【前橋電話電通】 군마현보안과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군마현오처군사만온천(群馬縣吾妻郡四萬溫泉)은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럿스며 온천려관의 류실만도 사만온천(四萬溫泉)에 십오호 택도온천(澤渡溫泉)에 삼십륙호를 비롯하야 류실총호수는 칠십일호에 달한다 이십륙일 오후아홉시 사만쪽 온천장에서 발견된시체는 오십오명으로 그중욕객(浴客)이 십삼명 행방불명이 여섯명 부상자가 일곱명이며 암도촌(岩島村)에서 발견된 자 다섯명이며 파상촌(阪上村)에서 발견된 시체는 두명 행방불명이 십오명이다 그리고사만오천하류의 사마천(四萬川)에 걸린교량은 전부류실되고 경찰전화와 공중전화는 모다 통치못하며 교통기관도 모다두절되여 그밧게피해는 목하판명되지안헛다

天氣豫報
晴

日本의 東海岸을 北上하든 猛烈한 颱風은 千島方面으로가고 能登附近에는 小低氣壓이 잇다 高氣壓은 中國大陸으로부터 朝鮮에건저 오는데 그勢力은 弱하다 昨日半島의中部로부터 南鮮一帶에 二十미리內外의 비가왓는데 今朝는 天候가 回復하야 滿洲、朝鮮、日本內地는모다 天候가맑고 氣溫은 昨朝보다 三度內外가 降下하엿다

昨日最高 二一、四
同 最低 一〇、九
今日正午 一九、五

停電中에窃盜

이십오일밤 열시오십분경에 약 오분간 정전되여 시내가 암흑화되든틈을 리용하야 시내 종로(鍾路)이정목 화신(和信)백화점 옥상에서 절도행위를 하려던자를정원이 발견하야 소관종로서(鍾路署)에 동행하여 갓든데동서에서 엄중 취조한결과 그는 충북청주군 강외면 련제리(淸州郡江外面蓮堤里)에 본적을 둔 주소부정의 박정래(朴鼎來)(二九)라는 자로서 시외성북리(城北里)최모의 집에서 시게와의복등 여섯점을 절취한외에 십여건의 절도행위를 한것을 자백하엿다

朝鮮中央日報機
羅南着白頭山行

이십륙일아침 여의도 비행장을 출발한 동업조선중앙일보사(朝鮮中央日報社) 백두산(白頭山)탐험비행긔(비행사 김동업(金東業)、사진반고자홍병옥(洪秉玉)량씨동승)은라남(羅南)에서하루밤을 새운후 이십칠일 오전여덟시 사십팔분 그곳비행장을 출발하야 곳백두산으로 향하엿다

愼機靑島에到着

【靑島廿六日發聯合】 동아친선비행신긔(愼機)는 이십륙일 오전일곱시사분 상해(上海)를 출발 오후두시 이십오분에 청도(靑島)비행장에 도착하엿다그곳에서하루밤을 묵은후 이십칠일아침대련(大連)을 경유하야 고경성으로 돌어올예정이다

全朝鮮學生籠球第三日
遠來의宣川信聖
一高普에게敗退
專賣·府廳戰未完
鐵道·總府는延期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一回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第三日은 廿七日午後二時부터 鐘路靑年會館 後庭에서 열리엇다 지난二日間의 白熱한 豫選의晉鬪를지나 마츰내 準準決勝戰에 드리간 中等部게임으로부터 開始된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中等部準準決勝

一高 29 {15 14 / 11 9} 20 信聖

【中等部第一次】 第一高普對宣川信聖戰은 同午後二時부터 安台慶、李惠逢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結局二十九對二十으로 遠來의 信聖軍惜敗하엿다(게임三十分間)

京城實業籠球리-그 第十日은 二十六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鐵道局對 總督府 專賣局對京城府廳의 두『게임』이 잇슬터인데 鐵道對總督府戰은 事情으로 延期되엿고 專賣局對 京城府廳戰만을 擧行한바 이『게임』은日沒로中止되엿다

【專賣】 ? 【府廳】
× (李承鎬 李容羲) 0…4 (晋其燁 河東楨) ○
× (廉宗燮 相馬) 0…4 (張南星 赤松) ○
○ (黃基成 後野) 4…3 (宋 森永) ×
○ (李鳳基 梁在景) 4…0 (金東赫 岩藤燦) ×

【第二라운드】
× (安完鎭 鹽坂) 0…4 (洪承杰 李鳳基) ○
○ (黃基成 後野) 4…1 (晋其燁 河東楨) ×
× (李鳳基 梁在景) 1…4 (張南星 赤松) ○

朝鮮神競
十月中旬부터
各種日割決定

第十一回朝鮮神宮競技大會는 十月中旬에 一齊히 擧行할터인바 今年은 明治神競大會豫選을 兼하야 行하기로되여 全競技스케쥴은 이미 決定되엿다 水上、氷上、漕艇을 除外한 日程은 다음과 가트며 劍柔道는京中道場에서 行할터이며 卓球、弓道及庭球의 一部를除하고 全部京城運動場에서 行하기로 되엿다

▲陸上競技
十七日(祭)前九時 / 十八日(金)後一時 各道對抗
十九日(土)後一時 / 二十日(日)前十一時 一般

▲野球
十四日(月)後一時 / 十五日(火)前九時 專門豫選
十六日(水)前九時 / 十七日(木)前九時 / 十八日(金)前九時 / 十九日(土)前九時 各道對豫選
二十日(日)後三時 決勝
十六日後三時 / 十七日後三時 / 十八日後三時 中等學校
十九日正午 中等準決勝
二十日正午 中等決勝
二十一日前十時 專門決勝

▲軟式野球
十一日前九時 / 十二日前九時 / 十三日前九時 豫選
十三日後三時 決勝

▲아式蹴球
十一日前九時 中等、一般豫選
十二日前九時 專門豫選
十四日前九時 中等專門準決勝
二十日正午 中等、專門、一般各決勝

▲럭비-
十三日前十一時 專門、一般準決勝
十五日後二時 中等準決勝
十七日正午 各決勝

▲籠球
十六日後二時 一般豫選
十七日前九時 女子豫選
後一時 男子中等豫選
十九日前十時 專門豫選
後一時 女子準決勝
後三時 男子中等準決勝
二十日前十時 各部決勝

▲硬球
十一日後一時 中等單複
十二日正午 一般複式
十三日前九時 一般單式
十四日時一時 中等單復

▲軟式庭球
十三日後一時 OB選手權(朝銀코-트)
十四日後四時 (鐵道코-트)
十四日後三時 專門對抗
十六日後三時
十七日前九時 女子中等
十八日前九時 男子中等
十九日前九時 府道對抗
二十日前九時 男子選手權

▲排球
十八日前九時 女子中等
同 後一分 女子一般
十九日前十時 男子一般決勝
同 後一時 女子中等決勝
同 後三時 女子一般決勝

▲卓球
十二日正午 男子中等
十三日前十時 女子一般
十四日前十時 男子一般

▲弓道
十六日前九時 各道對抗
十七日前九分 一般選手權
十八日前九時 中等校
同 後一時 專門校

▲柔劍道
廿六日(土) 少年部(初等學校) 中等學生部 一般部(劍道)
廿七日(日) 中等學生部 專門學生部 一般各道對抗(柔道)

▲角力
十七日前九時 一般、專門、中等

▲마스께임
二十日 正午 女子中等

全日本陸上豫選
競技時間變更

全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全日本陸上競技選手權大會朝鮮豫選會는 二十九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릴터이라함은 旣報하엿거니와 事情에依하야 當日正午부터 入場式을 맛치고競技를開始키로 變更되엿다한다

東洋에唯一인 內服藥 注射와同効한

神經痛 류마치스 患者여러분께

苦하시는 여러분께 참으로 同情하나이다 世上에는 여기에對한藥도만히宣傳하지만은 滿足을 줄만한根治藥은 하나도업다고해도 過言이아닐줄밋습니다 이와가튼大部分의 宣傳藥은 全部가 西洋藥本位로되여저서衣食住가다른東洋사람의體質에는 여러가지로適當치못할줄밋사오며 東洋에서단지하나인 神經痛良藥『野久之』는 獨特한處方이므로 近世에發達된西洋藥이따르지못할理想的奇妙한作用을하야着着으로말하면 古代로부터傳해오는難病救治를하고잇슴니다 이것은日本에서唯一한秘劑良藥으로서古代로부터有名하엿지만元來에特殊한原料와獨特한調

神經痛류마치스는 手足의關節과 脊柱와顔面과 頭部와 筋肉等이甚히알푸고 붓고저리고 땡겨서 오래동안 辛

製法에依하야製造하는關係上 大量의製造를 할수업서서他藥店에販賣치못함을 遺憾으로 생각하옵던中今年諸氏로부터宣傳되여 日加月增의 比로顧客注文됨으로 今般當市에出張所를設立하고 날로 시드러가는病者를救하기爲하야 直接注文者에게限하야만 送藥하기로햇사오니 이런機會를利用하야 繼續注文하야服用하시고全快하심을바라나이다 當所에는患者여러분의便利를 도모하느라고 朝鮮文으로쓴 說明書가잇사오니 朝鮮日報에서보섯다하고、편지나엽서로病勢를통지하시면、治療方法과野久之의由來와全快者의感謝狀과其他여러가지說明書를보내드리고全快의길을발부시도록專心專力하고자하오며 先金注文하시는분에게는送料를부담해드립니다、藥價는內用藥・一週分一圓、二週分三圓五十錢、三週分五圓、外用藥一圓、二圓、參圓等

東京市京橋區入舟町 藥野莊東京出張所 振替東京五四五〇番

農林省御推薦 가도다 石油發動機 農工業用 型錄進呈
合名會社 我商會店 京城府太平通二ノ五八 電話本局二一六八番

誠鶴秋季 景品付大賣出し
銘酒 誠鶴
仁川府 深見釀造場

기미가요 白毛染 赤毛染 君が代
婦人은于先白毛染 頭髮의化粧은君が代로
君が代는 定價 新型 二十錢 四十錢 液製 五十錢
德用二十錢
全國藥店에잇슴니다
本舖 山吉商店

第一잘팔니는 羽衣票之綿
羽衣綿 白鶴綿 布團綿
門司市大里 株式會社 大里製綿所

黑潮에우는마음
킹호-스
電光三九五 貫鐵洞 優美館

影 (그림자)
朝鮮키네마社超特作大傑作
原作脚色監督…春史

痔疾에는 오세로 치질藥으로 ¥0.30 ¥0.50
全國各藥店에잇슴

奇人豪傑二人旅客
하로의淑女
눈물과우슴의大國
大正館

朝鮮日報

昭和十年
九月二十八日

昭和七年十一月三十日
第三種郵便物認可

號外

朝鮮米第一回收穫豫想
一千七百八十萬石
比前年六分六厘의增收

今年度 朝鮮米 第一回 收穫豫想高는 一千七百六十一萬五千八百四十六石으로 前年度 實收高에 比하야 百九萬八千六百八石(六分六厘)의 增收의 豫想이다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家庭

게장은지금당글때
맛이잇스려면장맛이조와야해
장을자조다려부어야비리지안타
본바닥서울게장당그는법

먼저한말슴

이제부터 게도 장이 듬니다。지금쯤이 게장을 담그기에 제일 조흔 때요 또 제일 알마즌 때올시다。게는 불행히 토질균을 가지고잇서 일시 매매금지까지 당한 일이 잇사오나 요사이와서 그금지도 해제되야 버리엇습니다。그야 게외에도 생선 가재등 토질균을 가지고잇슨 종류가 업지안하니 게만을 못 먹게 금지하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그뿐이 아니라 이것 저것해도 게장처럼 맛난 반찬은 또다시 업습니다。그 맛난 반찬을 먹지 말라니 될법도 안한 소리입니다。그러나 반찬은 결국 솜씨에 달렷습니다。게장이라고 아모러케나 담거서 맛난것은 결코아닙니다。

게를 사서는 몬저 말짱하게 씻어야 합니다。솔을가지고 이발 저발 헤치어서 꼼꼼으로 문지르고 닥게가면서 물을 끼언저 씻습니다。그런뒤에 소코리나 광주리와 가튼데 담어서 물끼를 빼며 또 그런뒤에 항아리에 담스고 간장을 부어 버립니다。그래가지고는 한 사날동안 간장을 흥써 빨아드리도록 내버리어 둡시다。그러나 아모러케나

게가싸히어서야

어떠케 간이 물오밸수 잇습니까? 더구나 고추며 생강이며 냥념도 물오 배도록 해야 안합니까? 그러니까 게는 게대로 간장은 간장대로 또로 끄집어내노코 양념과함께 다시 채곡채곡 너허야 합니다。양념은 볽은고추를 씨발러서 톡톡 자르고 생강을 벗기어서 큼즉큼즉 썰고 마늘을벗기어 쪽으로너흐면 됩니다。

그래서 게한케 노코는 양념을 군데군데 벌려노코 다시또 게한케 노코는

양념을군데군데

벌리어 놋습니다。게는 어떠케놋는편보담 재처놋는편이 뻐죳습니다。

×

아모리 솜씨가 조화도 장맛이 글러서는 게장맛도 볼것이 업습니다。게장을 담그는데는 무엇보담도 맛조흔 장을 써야합니다。그뿐이 아니라 생간장으로는 비린내가 나기 쉬운지라 엣번쯤 간장을 쏘다가는 끄리어서 도로 부어야 합니다。양을 집어너흔후 한사날에한번씩 두서너번 끄리어부으면 아조 조흡니다。그러나 끝는 간장을

그대로부어서야

게가 익어버리게 되지 안습니까? 좀 식히어가지고 떠붓할때쯤 붓는것이 조흡니다。또 간장을 넘어 달리어서야 간장쩍이 안저서 도리어 짭숭지지 안습니까? 그저 딸딸 끄를정도로 끄리어두는것이 조흡니까? 그러케 보통이고 이상이고지내면 비린내가 업서지고 맛이 듭니다。그때의날세를 딸아 흑 더되도 익고 흑 일흑도 익지만 대개 닷새쯤이면 어서 알맛습니다。

그러나 웃직맛은

불탓에도달린것

이랍니다。맛난게장도 합부로 뜨더노하서는 볼품이업슨즉 다리는 다리대로 발발을 끈코 잘 포개노흔뒤 게따지를 올려 놋습니다。

엇더습니까 고구마토-스트

이제차차 고구마가 맛잇슬때 되엿습니다 다 몃가지 재료를가하야 『스위트 포테트』를 만드러보십시요。

재료— 고구마가란 개에 사탕이백그람、『빠타』사십그람、계란 노란자위 두개、소금 차 사시로 한사시、우유일합、이러합니다。

다음 만드는법은、고구마를 씨서서 부서지지안토록 지진질 냄비에 둥근모양 그대로 굽습니다 다익은후 기리로 반에베어서 것쪽이부서지지 안토록 숫가락으로 속을 죄다 파내서 그릇에담고 거기에다『빠타』를 녹인것과 사탕、소금、우유를 너허 석거서 고구마속에 도로 너허서 고구마 모양처럼 잘만드러서 겨란노란자를 고구마에 발나서 지짐질 냄비에 굽습니다

季節의料理

家庭醫學

소변이혼탁한병

問 이십팔세의 녀자로 약 륙개월전결혼하엿습니다 얼마전부터 소변이부엿케 호리고 조곰두면다랑의 침전물이 생깁니다 다른이상은 업습니다 무슨병증임니가 알니워주십시요 (勿禁一讀者)

答 단순한 방광염인지 혹은 림질인지 소변검사를 아니하고는 판단키어렵습니다 도아모병이아니고도 광물성성분이 석기어서 소변이 혼탁하는일도 잇습니다 열도아니나고 별로동통도 업거든 더경과를 살펴보시지요 (大學病院小川外科金晟鎭)

二十七日(金曜)

◇同六時 獨唱 李永淑 피아노伴奏 金敬寶
◇同六時二五分 가을과古蹟巡禮(第一日) 扶餘와그附近의古蹟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 (三) 靑梗과白菜의害蟲驅除 金鍾珏
◇同八時 伽倻琴倂唱과大笒 一、短歌 江山遊覽 二、唱劇調 타령 伽倻琴倂唱 金海仙 大笒 朴鍾基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連續古代劇(第一日) 李雲芳脚色 薔花紅蓮傳 라듸오·푸레이·미링 演出 朴珍

二十八日(土曜)

◇午後六時 童話 봄이난까닭 梁在應
◇同六時二五分 가을과古蹟巡禮(第二日) 慶州와그附近의古蹟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에…』 徐椿
◇同八時 朝鮮日報社主催第一回 音樂家新人選者의밤
빠이오링獨奏와獨唱
一、빠이오링獨奏
(가)레젠데…위니아우스키作曲
(나)상·드·발레…베트리오作曲
文學準 피아노伴奏 金元福
二、獨唱
(가)君想曲…슈-벨트作曲
(나)小夜曲…同
高鋼益 피아노伴奏
三、獨唱
(가)오·내사랑…조르다니作曲
(나)기다림…하일렌호作曲
李仁範 피아노伴奏 李有淳
◇同九時一五分 連續古代劇(第二日) 李雲芳脚色 薔花紅蓮傳 라디오·푸레이·미링 演出 朴珍

廿九日(日曜)

◇午後六時 兒童劇 貴順의죽엄 一幕二場 朴興珉作
(配役)
貴順……朴貞嬉
惠淑……崔辰男
淑姬……李永壽
安先生……韓紫雲
玉順母……李英玉
玉順……權玉喜
大鎭……李鍾禹
하라범……尹元之
自動車運轉手……朴民化
指揮 朴興珉 紫橋童心會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心眼을發明하라 金泰洽
◇同十時三〇分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頭擧 三、中葉 四、編 金水晶 盧錦桃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東)管絃樂 新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新秋) 朴慶英
◇同九時 名曲鑑賞(레코-드演奏) 一、죽엄과少女…슈-버-트作曲(미슈크마이나) 二、海邊에서…同(同) 三、未詳…同(今루-느스) 四、少年과手…마-르린作曲(同) 五、자장가…슈트라우스作曲(라이스너) 六、歌劇『魔笛』의射手…中에서 捕手의合唱…웨-버作曲(에르크男聲合唱團) 解說 李鍾泰 朝鮮音樂家協會

曆

九月廿八日(土)
舊九月建丙戌(小)初一日
丁未·水·女·開
●祭祀·移徒·裁衣上樑巳時에宜함
●寒露九日(舊九月十二日)
●霜降廿四日(舊九月廿七日)

朝鮮日報學藝部主催
家庭婦人『들노리』大會

너무 얼마마시고 날세조흔 이철에 하로쯤은 경치조코 공기조흔곳에서 유쾌히 자미잇게 노시도록하십시요。본사 학예부는 여러분을위하야 조흔날을 택해노코 『들노리』준비에밧븝니다 아못조록 이날 들노리에 만히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時日 九月二十九日(日) 雨天順延

아침 아홉시반까지 정거장(京城驛)으로 모이십시요 만약이 시간에지나면 미안하지만 모시고가기 어렵습니다
갈때 京城驛發午前十時五十分—安養驛着午前十一時二十六分
올때 安養驛發午後五時三十二分—京城驛着午後六時二十分

場所 安養(驛에서步行으로十分)

박、포도、배등속의 과실이 만히나기로 유명한 안양입니다 들노리할창소는 그득하고 물맑고 경치조흔 잔디밧입니다 정거장에서는 빔나무가 북과 십분바게 안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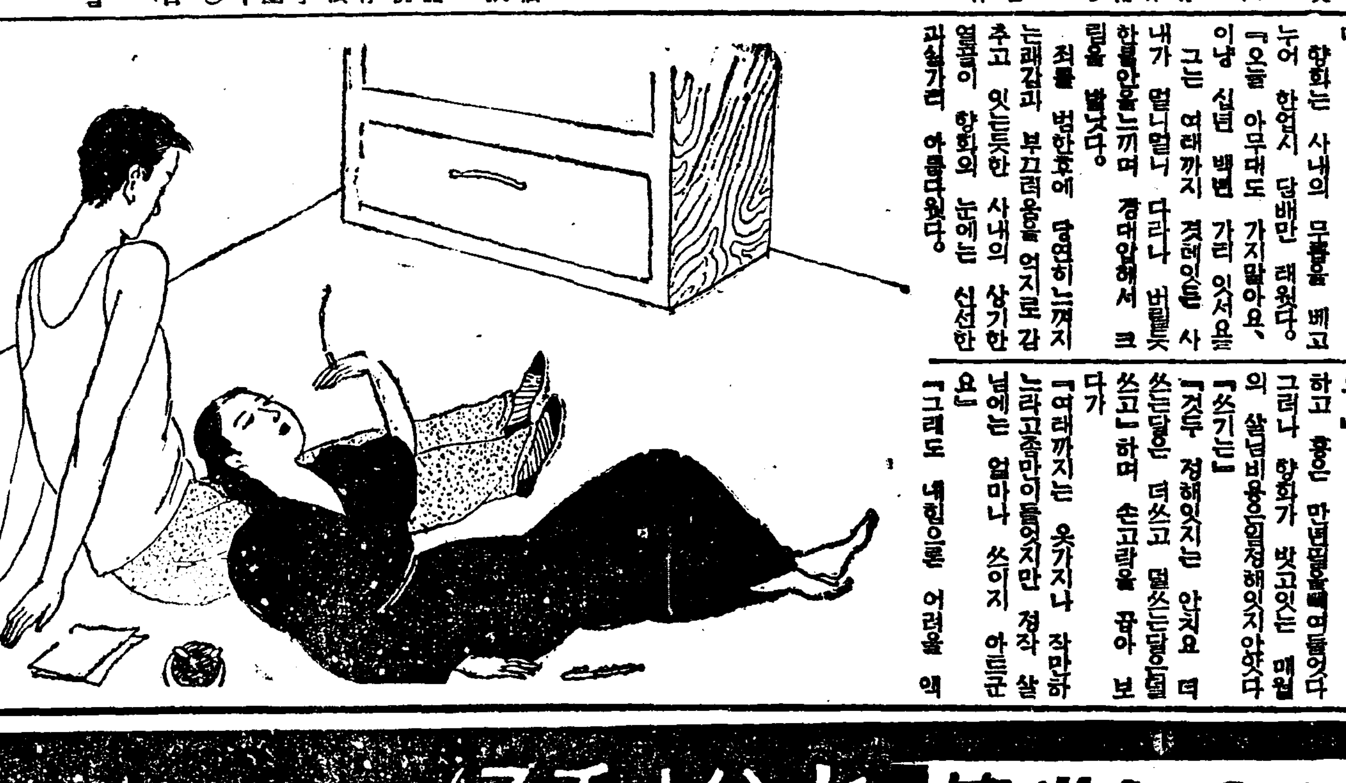
會費 (每人에八十錢) 定員百名

(가)회원은 부인에게한합니다 (나)점심은 각기싸가지고 오십시요 (다)어린애들은 되도록 더리고 오지마십시요 불득이 한경우면 할수업스나 보통회비의 반액(즉 왕복四十錢)을 더내서야됩니다

申請期限 (九月二十八日)

신청기한은 구월이십팔일 오전까지로 회비를 가지고 본사서무부에 오서서 신입하시고 회원증을 바다가십시요。한번신입하신뒤에는 이 대회에 참여하시지안는다라도 회비를 돌려 드리지안습니다

餘興 힘안들고 자미잇는 여러가지 경기와 발굽기 일등 이등 삼등 등수에따라 갑나가는 상품이잇고 보배찻기라고해서 『복주머니』를 찻는날에는 누구나 놀만한것(무엇이라는것은 말슴안드립니다) 이드려잇습니다。



短篇小說

女子의마음 (7)

張德祚 作
安夕影 畫

남쪽으로향한 왼쪽 창살에 오정 가까운 해스발이 찌는듯이 나려 쪼일때쯤하여 두사람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안젓다。신경은 밝은 바깟세상의 빗과 음향에 갑작이 무서운듯도하엿다。

향화는 사내의 무릅을 베고 누어 한업시 담배만 태웟다。

『오늘 아무데도 가지말아요。이냥 십년 백년 가티 잇서요』

그는 여태까지 겻대잇든 사내가 멀니멀니 다라나 버릴듯 한불안을 느끼며 징대답해서 크림을 발낫다。

처를 범한후에 당연히 느껴지는래감과 부끄러움을 억지로 감추고 잇는듯한 사내의 상기한 얼골이 향화의 눈에는 신선한 과실가티 아름다웟다。

향화는 남자의 이말이 미덥웟다 일시적으로 농락하다가 더저버릴 작정이 아닌듯한 사내의 이한마디는 천근의 무쇠보담더 든든한것가탓다。

『한달에 대체 얼마나 드려주오?』

하고 흥은 만면희색이 들엇다 그러나 향화가 밧고잇는 매월의 살님비용의 결정해잇지 안핫다。

『쓰기는』

『것두 정해잇지는 안치요 더 쓰는달은 더쓰고 덜쓰는달은 덜 쓰고』하며 손고락을 꼽아 보다가

『여태까지는 옷가지나 작만하느라고 좀만이들어지만 정작 살님에는 얼마나 쓰이지 아는군요。』

『그래도 네힘으론 어려울 액

『응 여보 우리 영감과 이별하고 갓치삽시다』 게집은 거울 압호로 한발더 다아안즈며 밤새도푸리하든 화제를 끄내여경대속 사내를 죽낫다。

사내는 향화의 입으로부터영감이야기가 나올때마다 관대하고 돈잇는 어떤인물이멀건히떠오르기는하나 그모양은 역시분명치못하엿다。

『좀더 기다려보고』

흥운은 게집이 영감을 떠나서 자기와함께될때 필연적으로 일어나고야말 콘다툼이 귀치안핫다。

그러나 한편 집안의 가장으로 버티여보는 자미란지 이런처를 자긔를 조와하는게집에게 방들님을맛틀때의 즐거움을 생각할때 마음이 띄지안흠도 아니엇다 더욱이 향화가 이집을 떠날때는 도전원이나 조히 절수잇슬것이니 그것만해도 가난속에서 졸내대기는 사내의마음은 흥흥할것갓탓다

그렁으로뭐때문에주저하시우』하고 게집이 앙탈을 부리는때는

『아직 그만한 수입이잇소』하고 사내는 굿세지 못하게 피하엿다。

『당분간 먹을것은 념녀말나니까』

『당분간 살것만엇스면도우 압으로 멧날을 다 어떠허구』

사내가 창연해지면

『우리 살림만하게되면 난 입도 부즈런히하고 물건도 아끼고해서 아주 절약해보지』하며 교태를 지엿다。

흥운도 한번 결심하면 어데까지 든지 견듸여 나갈것가튼 게집의 성질만은 밋을수 잇섯다

향화는 새내의 만연필을 빼앗스며

『계산하면 수가나우 우리 나갑시다』

하고 어멈을 불넛다

전등이 켜질때쯤 두 사람의그림자는 한강 인도교아래서 빗트를 젓고잇섯다。해가 지지 얼마되지안는 강변에는 산보객들이 희고 검은분의를 자아내고 잇다。

『날 어데 재미잇는곳에 데려다 주세요』

향화는 사내의 굳직한 손구락을 쥐고안아 가만히속삭이엇다 스나 그들은 어떤 열시가 넘엇언더에 오를때는 차시집에서 어름을 먹엇다。강풍이 옷자락 을날니는 그 요리집 이층에서 향화는 생후처음으로 장구소리 북소리를 실치안은 마음으로 들어섯다。

그날밤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안엇다。

學藝

國際法의 法理論的基礎

—그 學說史的考察에서—

(三)……申基碩

끗으로 自然法學派內으로 國際法에 超國家的 基礎를 定立하려는 學說을 紹介하고저한다

前述한바와 가티 十七八世紀의 自然法學說에잇서서도 國際法의 超國家性을 認定하엿든것이며 國際法自體가 自然法과 가티 發達되여온것이다 自然法은 近來새로운 形相으로 다시登場하기 始作하야 國際法의 理論的方面에도 疎忽히 못할硏究를 하고잇다

『카토릭』敎의 神學上의 立場에서 出發하야 國際法의 基礎를 硏究하는『마우스바타』는實證的 國際法의 根底에는 이것을 支持하고 生命을 너허 주는自然法을 發見 할수잇다 이 自然法은 모든 條約法及 慣習法에 對하야 基礎를 構成하는 것으로서 모든國家에 對하야다 가티 適用되는 普遍的法規이다 自然法에거슬니는 實證的國際法規는 無效하다고 主張한다。換言하면 國際法의基礎는 國家의 意思的法律이아니라 人性에內在한 權利를 容認하는 自然的이다 實證的인 立法의 根底에는 언제든지 一般的인 自然法則이 認定된다는것이 이自然法學派의 根本觀念이다。

이 自然法學派는 實證法學이 無視하여온 國際法의 理論的 構成을企圖하야 經驗的으로 所與된 實證法規의 基礎에 必然的基本的要素로서 自然法의 存在를 承認하고 이自然法에 依하야 國際法의 基礎를 삼으려는것이다。

以上에서 簡單히 論述한 諸學派는 國家意思로서 國際法의 根本을 삼으려는 實證主義法學派에 反對하야 超國家的 法源을 차저내는데에 共通되는 點이잇는것이다

끄트로낙나 · 낏스(獨乙)의 法理論은 國內法이 民族確信으로부터 發生하는것과가티 國際法도 法律的確信이 一致한民族確信을 基礎로하는것이라고 論한다

以上에서 國際法의 規範으로서의 性質에 關한 諸學者의 理論을 法律思想史的으로 一瞥하얏거니와 그學說을 大體로 分類하면 國際法의 法律的 性質을 確認하고 法으로서의 規範力을 認定하려는 一派가 잇스며 後者는 또國際法과 國內法을 全然別個의 相獨體系에 屬하는 法이라고 보는 二元的構成과 兩者의 法으로서의 本質的差異를 認定하지안는 一元的構成으로 分類할수잇으며 또國內法을 國際法의 上位에잇는 法秩序라고 認定하는 國內法優位論과 國際法에 對하야 國內法에優先하는 法律的 地位를 認定하는 國際法優位論으로 논을수잇는것이다

國際法을 否認하는 學說은國家主權의 最高性 即 各國家는 最高性을 가진 主權의主體로서 國家以上에서서 國家를拘束할아모것도 認定치안는觀念에서 出發한다『산델』은말하되『國際法의 主體로 認定되여잇는것은同格的인 國家다 即 相互間에支配的關係가 存在치안는 人間의 사이의 또는 人間의 集合의사이의 關係다 支配的關係가안인 모든 社會的의 勢力關係는 同意狀態에 不過한데 同意的形式은 法的 形成으로 思惟키 不能한故로 同格의 國家間의 規範인 國際法의 法的性質을 認定할수업다 하엿스며『國際法은 法의 本質的特性인 强制力이缺如되여 잇기때문에 卽國際法은 法을 法으로公布하고 實行을監督하고 保護하며 違反하는境遇에는 此를處罰하는 高位의權力이 存在하지 안키때문에 國際法의 存在를 否定하는 學者도잇스며(굼플로빗스)『法은 主權者의 命令 即 政治的上者로부터 政治的下者에의 命令인데國際法은 主體가 上下의 從屬的關係에 立하는者의間에 存在하는 規定이 안이고 法律的으로 同等의 地位에잇는 諸國家間의交通關係를 規定하는 規範인故로 法이안이고 實證的道德에 不過하다는 學者도잇다(오ー스틴)

國際法否認論者는 主權國家의 傳統的觀念에서 國際法을 否認하려고하나 主權의 槪念은 歷史的發展過程에 따라 幾多의意義의 變遷을經過하고왓스며 實證的 國際法規의 事實을觀察할때에 到底히 支持하지 못할見解임을알수잇다 絶對的主權의觀念은 國家에 對한 個人 或은 集團의 權利를 抑制壓迫하는것이며 國際的共同團體의 可能性을 消滅식히는것이다

藝苑拾遺 (下)

李有浩

『나는 피ー레』에게 금방 希臘語로 말을할려고하엿스나 그가 獨逸語를 알고잇다는것을 눈지채인故로 나는 獨語로 말하엿다。『이에나와 『와이말』사이에서 나는杏桃는 참맛잇습니다그려』라고。 피ー테를 맛나서는 매우崇高하고 意味深長한것을 말할녀고 나는그때까지 기ー느겨을 발올 자지도안코 生覺을 거듭하여든것이엿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와만낫슬때『자센의杏桃는 참말 맛잇습니다그려 라고 엉터리업는말을 하여버렷다』이것은 그의畢生의力作『로ー만체도』中의 一文인데 잇때 그는二十七歲의 白面書先生이엿다。

오! 人間하이네』의 사랑스러운이여! 正直함이여!

『自己의 生活을理念으로하여밧치는熱情家가 一瞬間에 잇서서 『피레』를이 利己的으로 快適히 八十七年의 全生涯를 通하여가진 幸福보담 더한層의 幸福을 感得할수업슬가하는것은 疑問입니다』이러케 撰稿하이네』가 그러면 一定한 理念(?)을 爲하여 피루성의 사홈을 하엿는가하면 決코 그러치는 안타。『才能이잇스나 主義가업다』한엇던評者의 말이 때로는 首肯될만큼 그의 藝術的活動에는 動搖를 계듭하엿든것이다。그러나 그가 삶을바터슬때가 分裂과 動搖의 難産期엿든것을 생각하면 主義가업다는 말을 듯든 그의 動搖性은 그가 그時代의 아들』이며 當時의 極히 嶄新한 그러나 實行力을 缺한『인테리겐챠』이엿다는것을 보인다。實상 그는 旣成의 모든 汚物에 毒舌을 퍼부엇지만 實行으로 凝集하는 意志力을 缺하고잇섯다 그러나 旣成의 汚物에 對하여 두려움업시 正義하고 銳利한 否定을 하엿다는 事實은 우리가 恒常 부러워하는 點이다。勿論 그 當然한 報酬는 가진 虐待와 賞罰이다! 그러나 이 虐待와 빈궁을 『Das ist auf Erden das Loos allem Schönen und Sussen !』(地上에 잇서서의 모든 꼿다운者와 사랑스러운者의 運命이다』라고 부르지 올수 잇는 그는 永久히 젊은 우리들을 갓가히하는 빗나는象徵이다! 더욱 하 그러기 [illegible]오로를 바다 다는 事實은 더욱더욱 우리들을 그에게 가까히 하는것이아닐까?

兩李氏小品展

靑田 李象範氏와 靑汀 李如星 兩氏의 小品展이 오는十月一日부터 三日間 東亞日報樓上에서 開催되다는데 總點數는 百點이나되다고

歸樵

黑風

韓龍雲 作 金熊超 畵 【141】

해후(邂逅) 24

『이 봉숙씨는 본래부터 저의 동무인대 미국에 가서 고학을 하다가 도라온지가 얼마되지 아니합니다 저는 이동무를 맛나보기 위하야 여기를 왓는대 이동무가 훙은선생님의 소식을 아는가 하고 무러보앗습니다 그런대 선생님의 성함을 몰나서 다만마모때에 미국가는 배 가온대서 해적을 맛나서 이러이러한분이 잇는대 혹시 그런이의소식을 드럿느냐고 무르니 그런 모호한말이 어대잇서요 그것을 알수가 잇습니까 나중에 압고보니 선생님은 시카고에 게시고 봉숙씨는 워싱톤에 잇섯다는대 선생님의 소식을 어떠케 알수가 잇겟서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구실을 하얏답니다』

하는 창순은 손으로 입을가리고 웃더니

『그러지 안해서 나는 정말바보야!, 이선생님이 내가 못든 그선생님이야 내가 말햇지 웨 언제』

하고 다시 봉숙을 향하야말하얏다

『에그 이상두 하야라 엇저면 일이 그러케 공교히 될까 그게다 인연이지 기다리든 선생님을 뜻박게 뵈옵게되니 그러치안혀 창순이』

하고 봉숙은 이상한일을 보는듯이 말한다

『사람의일은 뜻박게일이 만히 잇는것입니다 우리 세사람이 이러케 맛나는것도 기약한일이 아니만치 기이한 인연입니다 오날은 산보하는 날이니 모든 생각을 쉬이고 자연(自然)으로 도라가 볼까요』

왕한은 두녀자를 향하야 이러케 말하얏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 자연이 될수가 잇슬까요 갓혼 자연이라도 좋은 꼿이되지 못하고 꼿은 입히되지 못하겟치오 좋은 자연이지마는 빗이 잇고 꼿은 자연이지마는 향기가 잇습니다 사람이 아모리자연이되고저 한대도 마음올때난 자연은 될수가 업겟지오 만일사람이 마음을 떠나서 자연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혀 부자연이 아닐까요』

하는 창순은 무슨 철학문답이나 하는듯이 말하얏다

『그럿습니다 사람으로서 마음을 아조 떠날수는 업겟지오 자연으로 도라간다는 말은 자연을 사랑한다는 말이겟지오 이러한때는 근심이니 걱정이니 하는 마음을 쉬어바리고 꼿과 새와구름이나 비밥을사랑한다면그것이 곳 자연으로 도라가는것이라고 하겟지오』

왕한은 창순의말을 승인하면서 다시 자기의 말을 변명하얏다

『그런대 웨 사람은 자연을부러워 할까요 저는 만일 자연이 되얏스면 사람을 부워할것 가튼데요』

하는 봉숙은 눈으로는 창순을 보고 말하얏스나 실로는왕한에게 강한 화살을 보낸것이엇다

손바닥을 가벼웁게 치면서

『찬성이요 찬성이오』

하는 창순은 왕한이가 대답하기 전에

『사람은 마음이 잇는까닭으로 다른것보다 귀한것입니다 천하를 위하는 근심도 잇고사회를 위하는 걱정도 잇고특의와 성공의 깃붐도 잇는것입니다 또는 이성(異性)의사랑이라는것도 적은것은 아니겟지오 그런 마음은 사람에게만 잇는 가장 귀한 행복입니다 그러한대 그러한 마음을 떠나서 자연이 되고저하는것은 무슨까닭일까요』

하야서 자기들의 기세를 도두고 왕한을 추궁하얏다

『서선생님이 자연을 사랑하는 말에 네가 새암이 낫고나 이성을』사랑하는것도 적은일은 아니라는 말이 무슨말이냐 너는 새암도 만키도하다 그런일에 다 새암을내니』

하고 봉숙은 창순의 귀에 입을대이고 말하얏다

美와魅力의 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內務省衛生試驗所無鉛御證明

아조어엽분化粧이 어느분에게나잘되고못된것업서
겨우三十秒의短時間에훌융하게된다
써보신분들에게評判을들어보십시요

タンゴドラン七色
얼굴빗에따라서 一層어엽부게된
一般婦人에게……肌色
얼골하연분에……白色
얼골파리한분에……淡紅色
얼골거문분에는……早曉色
얼골창백한분에는……爽健色
얼골붉은분에는……新鮮色
尖端美容에는……明朗色
正價(各色一個)・五〇
海外郵稅及送料加算

姉妹品(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百貨店・藥局・洋品店・化粧品店等에잇슴

日本總發賣元 株式會社鳳島メール本舖 東京・大阪

潤質 半煉出づ

クラブ齒磨 구라부

美裝罐入

大罐一個・十六錢

待望의新製品、潤質半煉 クラブ齒磨는、粉과煉의 性質이併合하야진 同時에粉의特徵을最大限度로살닌、全然新樣式의 齒磨입니다、이것은 クラブ齒磨와갓치 優良한淸掃作用을할뿐안이라、그特殊한粉末이配合藥劑에 依하야適當한濕度를가지고잇서、粉이飛散한다는從來의缺點이完全하게除去된것입니다、粉齒磨의愛好者에는全然理想的齒磨며、더구나오래쓰고德用的입니다。

完全한淸掃作用!

クラブ煉齒磨及潤質半煉 クラブ齒磨는、놀낼만치齒牙를純白케하고 强하게할뿐아니라、口中에 繁殖하는 두려운菌이나、煙草의니코진과갓치 끈끈하게 齒의 表面에 附着한것들을 除去하야、口中淸掃의 目的을 完全히하며 또齒齡을長久케하는 特殊한 高貴原料를 包含하여잇습니다。

子女들도 깁버함니다

クラブ齒磨는、이러케强力한淸掃作用을한다子女들의脆弱한齒質에全然安全하고、목으로넘어가도何等의副作用이업스며、그爽快한香味는子女子들의맘에들음으로 따러서깁버하여이를닥는게되는조흔習慣이붓는다。

改正價段 15セン 46セン

綜合運動場工事와 三百土幕民의受難
撤去命令을바덧스나갈곳이업서 鷄林慈善會에서斡旋中

【仁川】소위오만원경비로 종합대운동장을 만들겟다는 공사는 긔공한지 벌여가되여 착착진행중에잇는바 그반면에는 오십여호의토막이 대수란을 밧게되엿다 그는현운동장 긔지인 도산정(桃山町)산언덕에살고 잇는토막민들인 청천의벽력과 가튼철거명령을 바덧스나 이전할곳이 업서서 토막민 오십여명이 계림선회(鷄林慈善會)에 쇄도하야 그구원을 눈물섞거 애원함으로 부른목과에 이를교섭한결과 이전할곳을 지정하야 주엇스면 조켓스나 지정하야줄것도업고 전긔토막은 부의허가도업시 각각임의건축한것이라 구체적책임은 업다함으로 그러면 만석정(萬石町)에 잇는부유토지 팔백평을 대부하야주면 지세는 부회에서 책임지불하겟다 하얏스나 그여매도키로 부회에통과되엿스나 사용하랴면 매수대부하라하나 동회의자금이 넉넉지못한형편이라 가장우려되는 현이라는데 문제가곤재이니 만흠동회간부 일동은 극력주선중이라는데 그진정이 가장주목처이라한다

躍進仁川港裡面에 土幕民만激增
府社會課서對策講究

【仁川】년무역액이억원을돌파하는 대무역항인천에는 근일도시체면을 유지키위하야 시내에는 초가집을 허락치안흘방침이라고 전하든바 오는십월일일부터 토막과불량주택등을 조사하야 가급적 개량케하야 미관을정하게할방침이라는대 전년도조사에의하면 일이회조사에 점차격증할뿐이라한다

◇前年度土幕民
十月末 一二五〇戶 九〇九八人
三月末 二六五 七九七
◇前年度不良住宅
三月末 五一二 二〇五六
十月末 一七二四 七五二〇

列車脫線騷動

【新義州】지난 이십일오전열한시경 경의선 백마역(白馬驛)을 출발한 제백사십일호 화물열차가 지난번 신의주대홍수로 끈허젓든 선로부근에 다다럿슬때 (백마긔점일키로) 긔관차 바퀴에서 이상한 음향을 내이며 돌연견복케된것을 급정거하얏다 이급보로 인하야 뒤로오든 「히까리」가 그대로 통과하려는것을 백마역에서 비상신호로 정거식히고 그긔관차로 현장에 달녀가 구원한결과 약한시간반동안만에 복구되얏다 이때문에 이날 히까리는 한시반동안이 연착되얏스며 렬차가 전복케되얏든 원인을 조사한결과 철도선로우에 잔돌로 무더이를 쏴하노흔것이 발견된바 이것은 부근아해들의 작난으로 한것갓치 생각되다하야 목하 취조중이며 부상자는 한명도업섯다한다

義州邑內火災
損害額千餘圓

【義州】지난이십사일오후십일시경 의주읍동교동 이백오십팔번지 려관주(鈴間館)방에서 발화되여 일가가전소되엿는대 렬풍으로 맘미암아 화세는 맹렬함에 딸아읍내에는 일시소동을일으켯는대 손해액은 일천이백여원이라하며 발화원인은 온돌에 불을 만이때인것으로 인함이라한다

奇特한崔少年

【元山】동심(童心)으로는 상찬하다ㅡ원산부명석동사십번지 최대벽(崔大闢)씨차남성우(成祐)(一〇)군은 지난이십사일오전 십일시경 정정소학교운동회장에서 금일원을 어떠꼿원산서에 습득거와함께 제출하얏다는데 일반은 어린아해의순결을 칭송한다고한다

春川大同商會 六百餘圓盜難

【春川】지난이십삼일 오후열시경에 춘천 읍본정삼정목 김지영(金址泳)경영의 대동상회(大同商會)에서 현금륙백여원 이들어잇는 수제금고를 도란당하엿는데 어시사일 조조에 수제금고만은 대동상회앞 공설시장에 버려잇섯스며 [illegible] 열고가저갓다는데 범인은 오리무중이라한다

大田의年中行事인 市民大運動會
오는십월이십일을긔하야 本報支局主催로擧行

【大田】대전시민의 연중행사로 매년거행되는 시민대운동회(市民大運動會)는 녜년과가치 본보대전지국주최로 오는 십월이십일(日曜日)을 복하야 시내제이공립보통학교(第二普校)에서 성대히 거행할터이라는바 일반시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잇기를 바란다고한다

同伴救하라다가 三少女一時溺死
栗洞西海岸에서〃굴〃캐다가 海中의人情悲劇一幕

【海州】바다에서 굴잡이(採蠣)하다가 물쓰는바람에 겨류에 휩쓸려드러가 『에스오에쓰』(SOS)를 부르짓는 두동무를 구조하려고 그무서운 겨류에 뛰여드러가 활동하다가 그두동무와 함께 바다에 생명을 빼앗긴 아름다운인정비극(人情悲劇)이잇다 송화군 진풍면 내리(松禾郡眞風面內里)에 사는 일부소녀들은 늘 그부근바다에서 하로종일 이십전버리밧게안되는『굴잡이』를 직업적으로하야 구차한 살림사리를 내조해오든터인바 지난 이십륙일오전십일시경 전긔진풍면내리에 거주하는 려옥만(呂玉萬)(一五)외 팔명의 소녀는 전과가티 그동리 률동서해안(栗洞西海岸)에서 약일정되는 바다가운데서『굴잡이』를 하든중 그들소녀중 려봉락(呂鳳樂)(一三)조소비(趙小妃)(一五)두소녀는 쓰는물(退潮)의 급류로 말미암아 자유를 이러 겨류에 휩쓸려가면서 구호를 부르짓자 이것을 목격한 려옥만(呂玉萬)(一五)은 그두동무를 구하고저 그무서운겨류에 뛰여드러가 활동하다가 맛춤내 그두동무와 더부러 익사하엿다는데 전긔려옥만과 려봉락 두소녀의시체(屍體)는 동일오후 오시경 그부근바다에서발견하엿스나 조소비의 시체는 아직발견치못하엿다한다

宣川體育會主催 陸上競技盛況

【宣川】선천체육회주최의 제삼회 선천시민륙상경기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사일 오전구시부터 당지 신성학교운동장에서 백대홍대의 량단선수 입백오십여명의 참집으로 지휘장한 양춘(韓陽春)씨의 준엄한 주의사항이잇슨후 전년 우승팀홍대로부터 우승긔반환과 아울러만세삼창으로 개막되매 량단의백열적 분투로 결국 백대가전년의 참패를 복수하야 우승의월계관을 획득하고 오후사시에우승긔수여가잇슨후 막을닷치엿다한다

第四回余群山 市民運動會

【群山】제사회 군산시민운동대회(群山市民運動大會)는 예정과가티 지난 이십사일 오전구시부터 군산부 일출정(日出町)공설운동장(公衆運動場)에서 좌등(佐藤)부윤의 개회사로 시작되얏다 참가선수가 삼백、이만여의 관중의 참호리에 경기는 제등경쟁(提燈競爭)을 비롯하야 사십칠종의 경기를 순서대로 맛치엿는데 전적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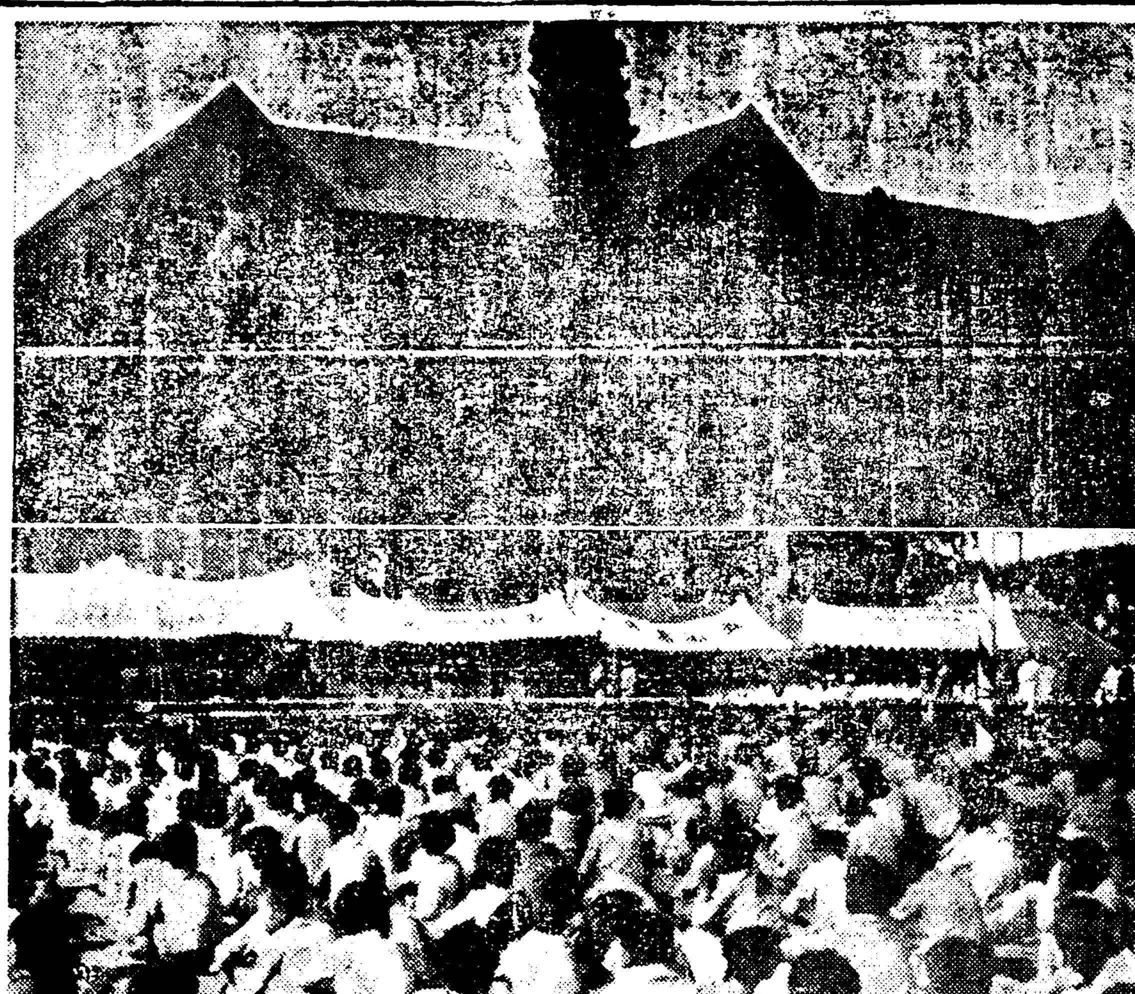
▲商店巡訪競爭 一着宋在根 二着崔鳳基 三着成相根 四着金錫基 五着李明煥
▲長距離競爭(六哩) 一着河南龍 二着宋在根 三着李成基 四着伊東 五着任健鎬

千餘人士會合으로 五山高普落成式盛況
勤續職員七名도同時에表彰 廿五日同校校庭에서

【定州】작년봄 화재로인하여 교사를 일허버린 오산고보(五山高普)에서는 동교관계자제씨의 필사적 노력과 전조선적으로 집중된 동정으로 총연평 륙백이십구평 연와이개의 굉장한 교사를 구만여원의 건축비를 드려 신축하든바 금월중순에 준공되엿슴으로 지난이십오일 오후한시에 동교운동장에서 신축락성식(新築落成式)을 거행하엿는데 평소에 동교를 사랑하든 관서일대의유지 칠백여명 동교생도 천여명 일반관람자 수천명의 회집하에 화화(花火)를신호로 주(朱)교장의 식사로개식하여 학교연혁보고복구상황보고가 잇슨다음 재단법인관계 십주년근속직원김기홍(金基鴻)리경린(李鏡麟)조시연(趙始淵)승계련 조형균(趙衡均)이인수(李寅洙)이찬국(李贊國)씨등칠명에게 긔렴품진정이 잇섯고 조만식(曺晩植)씨외 수씨의 의미심장한축사가 잇슨다음 전조선에서 모여온 수백통의 축전축문랑독이 잇슨후 동교리사 김긔홍씨의 사사(謝辭)와 동교만세삼창으로 동삼시에 식은 성황리에 맛치엇고 이여서 칠백여래빈의 오찬회가 잇섯다한다

槐山各學校、團體 對抗리레盛況

【槐山】년중행사로 개최되는각학교 각청년단대항리레ㅡ는 지난이십이일 괴산공립보통학교에서 거행되엿다 먼저 각학교대항리레ㅡ에는 팔개교출전으로결국 우승의 월계관은 청천공립보통학교(靑川公普校)로 도라가고 청년단대항리레에도 역시청년림으로 도라가서 괴산공립보통학교장으로부터 우승긔 수여가 잇섯다한다



◇寫眞(上)竣工된五山高普校舍全景(下)同落成式에參集한群衆

護送中脫走犯人 五日만에逐被逮
護送든警官의손에

【密陽】지난십칠일 전남순천(順天)에서 대구복심법원으로 호송중 밀양、유천(密陽、楡川)간 진행중열차에서 절도범이 뛰여내려 도주한사실은 긔보한바어니와 다라난지 불과다새만에호송하든경관의 손에 도로잡히엇다는데 그체포현장의광경을 들어보면 우연히 지난이십일일오후일곱시경 그범인을 노친 호송경관이든(鄭)경부가 범인을일코 실의한남어지 순천으로 도로도라가든중 마산사상역(沙上驛)에 다다럿슬때에 차에 오르든 사나히가 노처버린범인과 흡사함으로 차에 오르기를 기다려 곳체포한결과 진범인이므로 즉시 밀양서에 호송하여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는 사상역에서 역장에게 무료승차를 애원하여 무료승차하고 부산으로 가랴다가 그와가티 무난히 체포된것이라한다

八個公普校團의 庭球試合盛況

【延安】연백군내 각보통학교련합정구시합 대회를 지난 이십삼일에 연안공보교 운동장에서 팔개단체의 경기가 성대히 개최되야 대성황을 일우엇는데 결국 우승은 연안공보교단으로 도라갓다고한다

黃海道一面一校制 明年度로完成!
明年豫定十七個校

【海州】문맹퇴치를 목표로 진행되고잇는 황해도의 일면일교제ㅡ황해도당국에서는 총독부방침에 의하야 일면일교 시설을 목표로 그 완성공작에 매진하고 잇는터인데 금년중에 보통학교(普校) 십구개소와 간이학교(簡易學校)시설개소 도합 삼십륙개교를 시설하엿는데 내년도에 시설예정교 보통학교 십칠개소를 증설하면 일면일교제는 완성되여 나날히 격렬화하는 입학난문제를 어느정도까지 완화하리라한다

金應攝氏美擧

【宜川】청년실업가 김응섭(金應攝)씨는 금번당지 재단법인명신학교(財團法人明新學校)에 전긔사이렌시가일백삼십원을 자진기부하엿다는바 학교당국에서는 감사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平壤 關西軟式野球大會

▲時日 九月二十八、九兩日正午
▲場所 平鐵球場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淋疾

實驗推奬
京都帝國大學附屬病院皮膚泌尿器科醫學博士 片山義郞先生
先東京市立府病院泌尿器科醫長醫學博士 橫尾守中先生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內服治淋劑 製法特許
バロール (바로ㅡ루)

바로ㅡ루의獨特한性狀!!

本劑바로ㅡ루는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敎授理學博士及小田切理學士등이 發明完成한「오루가노조루」製法을應用하여同研究所內에特許施設인理化學的操作으로서銀을마이소루白檀油中에 極微粒고로이드狀에다가더욱濃厚하게分散하여서된 銀오루가노조루製劑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銀이가진바强力한殺菌性消炎力을內服化하는대成功한것으로이야말노治淋界에잇서劃期的發明으로專門家가다가치 絶讚推奬하는바이다. 그런대바로ㅡ루는다갓치銀劑라할지라도在來의局所劑와는其作用을달니하는、독특한銀內服新藥이라할수잇읍니다

그特殊醫治作用!

即이바로ㅡ루中에包含된銀은在來의銀과는判異하야 銀의分子를限外顯微鏡으로專門家가그銀粒子를檢査하여相當一定量의品質優秀한他人의模倣할수업는 眞性고로이드銀을研究所에서 創製한것입니다 이고로이도 銀의內服으로因하여銀이體內에吸收되야 迅速히滲透作用을하매부라운運動의 特殊活動에依하야서尿道의粘膜纖膜內病巢深部는勿論粘膜組織內、腺窩部의淋巴線、婦人의膣組織內、子宮頸의實內等의深部에直接殺菌作用을나타내여이淋菌膿球의破壞殺滅을顯微鏡下에서볼수가잇읍니다. 그大部分은 구리쿠론酸及硫酸과抱合하여 無作用이되여尿로나와游離하여尿道의防腐消毒作用을하되粘膜을刺戟치안코炎症을增加함이업시銀의作用과아울너淋疾治療의 目的을達할수잇읍니다

淋疾患者에對한 京大附屬病院 片山博士實驗

京都帝國大學附屬病院皮膚泌尿器科醫學博士片山義郞先生은 附屬大學病院에서바로ㅡ루를患者에게주어唯一의治療로하고 그效果를觀察한즉 尿가輕微或은淸澄해지고顯微鏡的으로 淋菌의消失하는日數가短縮되고白檀油만으로써治療한經驗에比하여 훨신效果가增强케되엿다。 特히慢性淋疾患者에잇서서는 尿中의沈降性淋絲는 本劑의服用으로써 分明히減少되며 尿가淸澄、淋菌消失되는治驗成績을어든바는 本劑의特殊한特點입니다

◇바로ㅡ루는全國有名藥店에有함 바로ㅡ루라고指示하시옵 萬一品切되는때는 直接發賣元에振替又는代金引換으로 注文하시면直送하겟읍 (前金注文時는 送料不要、郵稅代用도無妨)

文獻進呈 片山博士、橫尾博士의實驗報告希望者는發賣元에申込하시옵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 內地十五錢

大木五臟圓本舖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가지町大通(神田驛前) 振替東京四〇番 代表電話神田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二丁目 振替大阪 電話本局

頭腦도身体의一部
아시는듯하지만……그러치안타!

머리도身體의 部分이라고 그야 勿論이지! 그것쯤은 네가 말하지안어도 다안다고 누구든지 말하겟지만 그러타고하면「그것쯤은 안다고하는」머리를 얼마나 慰勞하는가?

그러치 옛날과갓치 時代가 複雜치안을때에는特別히 머리에對한것도 考慮치안코 지낫지만文化가 날노 發展되고잇는 現代에 와서는 每日每日 繁忙雜踏한 生活에 追及되야大多數의사람은 寸時도 머리를 쉬일餘暇가업는것이다 酷使하는 一方에 머리의 榮養갓튼것을 全혀 關心에두지안는 사람도 적지안타 그리하야 身體의 一部分인 머리에對하야 너무나 지나친일이다。

주저말고、「하레야가」를먹으시고 身體中에서도 特히重要한머리를 慰勞하여주시라。「하레야가」에는 머리의基原이라고도 할燐、카루슘의榮養素는勿論、腦症狀에도 特効가잇스며、胃腸까지도 튼튼케하는 貴重藥을 包含한、가장 進步된 病原的 綜合藥이올시다。

主効──頭痛、齒痛、不眠症、神經衰弱、히스데리、疲勞恢復、眩氣症、醉船車暈、胃腸의病에依한頭痛

榮養補給의新療法 頭腦健康의原則과

▼……從來、頭痛、眩氣等의 腦神經症狀에對하야는、鎭靜劑와가ᄎ 오직症狀에作用하는 藥劑뿐만이엇섯고、中心되는病原에作用하는것은 거이全無엿섯다。 더욱히、그러한對症藥、特히鎭靜劑의大部分에잇서서는、胃腸에미치는副作用을끼치여、連用하면胃腸障害를惹起하야 胃潰瘍等의致命症을誘發하는 危險도적지안타。

▼……元來、腦症狀의 太半은頭腦榮養素의主體가되는燐카루슘의 缺乏或은 胃腸障碍에依한 自家中毒의結果임으로서 從來의鎭靜劑로서는 그러한根本策에 미치지안을뿐外라原因的으로는 惡化식히는矛盾에잇다。

▼……故로 近代醫學은 腦保健의 原則으로서、一에腦神經細胞素요 또는神經作用의原動力인 有機燐及카루슘의補給과、二에 腦神經의作用을 鈍痲식히는胃腸障碍에基한 腦의自家中毒의發生을防禦식힐것을 說明하고잇지만이新原則에立脚하야 頭腦에榮養을 補給함과同時에症狀에도作用하며 또는胃腸도强식히는 綜合效果의集積이 近世에頭痛疲勞恢復劑로서各方面으로부터 推奬되고잇는 燐合成劑「하레야가」이다。

▼……即「하레야가」는 頭腦의根原이라고할榮養素、燐及카루슘에配合하야 頭痛에特効잇는 諸種의代表藥成分으로서、日獨藥化學研究所、多年의苦心으로된 特殊方法에依하야 創製된것으로서、頭痛 그것에精强明快力에 優秀한獨自性을有한것은勿論、그效果가迅速한거니와效力의持續性은 藥質自體가 倂有한 胃腸强化의 綜合藥能과共히 가장 進步된頭腦藥、疲勞恢復藥으로서의 條件을適備하고잇다。

定價 藥價
三十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販賣店
東京・銀座一ノ三
日獨醫化學研究所
電話京橋六八四一・八二五〇 振替東京三〇〇三三番

頭痛・眩氣・疲勞回復에

はれやか
하레야가